

전남 귀어학교, 어촌 소멸 위기 극복 '든든한 조력자'

지난해 194가구 귀어...수료생 절반 어촌 정착·만족도 높아 선배 어업인 1대1 현장 교육 등 지원...제13기 수강생 모집

전남 귀어학교가 어촌 소멸위기 극복에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귀어학교 수료생의 전남 어촌 정착률을 절반에 가깝고 수료생 만족도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귀어난 가구는 194가구로 전국 귀어 가구의 35%를 차지했다. 전남의 귀어가구는 충남(152가구)과 경남(54가구), 전북(44가구) 등 귀어인구가 많은 지역을 크게 앞섰다. 전남의 귀어가구가 증가한 데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전남 귀어학교가 큰 역할을 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미래 수산인력 유성과 어촌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을 비롯해 실습 어가에서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배 어업인과 1대1 현장 중심형 교육 및 귀어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 전수를 지원하고 어촌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부터 귀어학교를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1~12기 302명이 입교해 201명이 최종 수료했다.

전남도가 올해를 제외한 수료생 191명을 대상으로 귀어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83명이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착률 4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료생들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97.5%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남 귀어학교를 찾는 교육생들은 성별과 연령, 지역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4월,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진 전남 귀어학교 12기 수료생들의 경우, 남성 16명 여성 4명이 배출됐는데 5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명, 60대 4명, 30대 4명 등 다양했다.

출신 지역도 전남이 10명, 광주 4명, 서울 3명, 경기 1명, 대전 1명, 충북 1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귀어학교를 찾았다.

전남도는 올해도 전남으로의 귀어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남 귀어학교를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들은 2주간 보수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주관하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거나, 전



올해 4월 열린 전남 귀어학교 12기 수료식 모습. <전남도 제공>

남 귀어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는 시민이면 수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면서도 막막한 시민들에게 귀어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장 체험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으로 귀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귀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 셰프들 '한국의 장' 경연 열기 '후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전 행사...프랑스 등 13개국 한국 공관서 예선전

전남도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해외 요리사를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펼치고 있다.

경연 대회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셰프가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나라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에서의 예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에서는 예선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가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3개 팀은 박람회 기간인 10월 4일 박람회 현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올라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 요리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셰프는 각국의 미식 정체성과 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발효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글로벌



케이푸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관계자는 "한식이 세계 각국 셰프와 만나 어떤 창의적 형태로 재해석될지 기대가 크다"며 "국제적 수준의 경연을 통해 케이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남도의 식재료와 미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축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여우러진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행사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동물위생시험소, 여름철 달걀 안전성 검사

8월까지 산란계 농가 116곳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오는 8월까지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산란계 농가 116곳으로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과 유해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살충제 34종을 포함해 항생제 등 총 81종의 잔류물질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다.

시군 담당 공무원이 농장에서 난각 번호를 확인하고 계란 시료를 수거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해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계란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

류 위험 농가'로 지정돼 계란 출하와 판매가 제한된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는 2주간격으로 연속 검사를 하고 사육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지도 조치가 함께 취해진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계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농가의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계속되는 계란값 상승으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달걀 드시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 관리와 대응으로 신뢰받는 식품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친환경 중심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 105억 투입

전남도는 1일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105억원(보조 83억·자담 22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순천농협,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농촌 생태계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71개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에 친환경농업 생산·

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 장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장흥 지복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중 나주 계량마을은 2024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지원받아 김치 가공공장 운영 등으로 마을 수입을 창출하고, 생태농업 수확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인 3만 4000ha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 미래 농업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원 참여 기업 모집

전남도가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 가치로 산출해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전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지원사업(3기)' 참여 기업 모집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가치로, 제품·서비스 기부, 취약계층 고용, 자원소비 절감·환경오염 저감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한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거쳐 기업 스스로 경영 개선과 혁신의 방향을 찾고, 인센티브를 다시 경영활동에 투입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3월 공역자치단체 최초로 SK그룹과 사회경제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PC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전남도 등은 당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2기 총 22개사를 선정해 약 1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약 15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전남도 등은 2027년까지 매년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해 3년 간 SK그룹과 공동으로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희망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7월 10일까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27일 사업 공모 온라인 설명회도 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